

조주현 차관 포항 태풍 대책 논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4일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의 피해 지역을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과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 백운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심민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장, 이광영 기술보조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진수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이 동행했다.

먼저 포항철강관리공단을 찾은 조 차관은 태풍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오전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부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도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소상공인 평생교육 연수원 건립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인 ▷기업 위기 극복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철강 리바운드 펀드 조성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소재부품 다변화 지원 ▷성장주도형 R&D 스퀘어-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피해를 입은 철강산업 관련 중소기업들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면서 "오늘 주신 의견들과 포항시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우 기자 sdw@maeil.com

김대영 대구시 투자유치과장 임용



대구시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김대영(42)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을 신입 투자유치과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신입 과장은 덕원고와 연세대 경제학·응용통계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0년 행정고시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통상현안대응단,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수소산업과 등을 거쳤다.

김 과장은 경제통상 및 에너지 신산업, 산업 디지털화, 산업기술 R&D 등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장정현 기자 shjang@maeil.com

"이게 뭐니까" 보수 원로 김동길 명예교수 별세

2월 코로나 확진됐다 회복 후 악화 나비넥타이·콧수염 트레이드 마크



보수 진영 원로 인사인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4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입원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에반스빌대와 보스턴대에서 각각 사학과 철학을 공부해 문사철(文史哲)을 섭렵했고 100권 안팎의 저서를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운동·현실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도 연루되며 대학에서 두 차례 해직됐다.

이후 민주화운동과 거리를 둔 고인은 1991년 강의 도중 강경대 치사 사건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가 학생들 반발에 강단을 떠났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4년 신민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고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그러나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나비넥타이와 콧수염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고인은 1980년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뭐니까'라는 유행어를 남겼다. 말년에는 보수 진영 원로이자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자살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도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운영했다. 올해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고인은 생전 서약에 따라 시신을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故)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낸 이화여대에 기부한다.

장례는 고인이 누나를 기리기 위해 자택 마당에 건립한 김옥길기념관에서 가족장으로 오는 7일까지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여동생 옥영·수옥 씨가 있다. 장지는 고인의 부모가 모셔진 경기 양평군 소재 가족묘다.

한스

구미 김효숙 미술치료학박사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책 펴내



김효숙 미술치료학 박사(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가 서울과 경북 구미에서 미술치료를 한 사례들을 모은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그림 읽기'란 책을 발간했다.

326쪽의 책은 1~6장으로 구성됐으며, 미술치료 현장에서 내담자가 직접 그린 그림을 중심으로 가감 없이 기술해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 그리고 읽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부모의 양육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상처받은 내담자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 등을 다뤄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책은 1장 독신적인 부모·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 2장 역기능 가족·병든 가족, 3장 학대하는 부모·자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 4장 미성숙한 부모·자녀를 지켜주지 않는 부모, 5장 자녀에게 복수당하는 부모·가해자와 피해자, 6 장은 존경을 받는 부모 되기·바람직한 부모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이창희 기자 lch888@maeil.com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

박은숙 씨 '완행열차' 대상

제9회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에서 박은숙 씨의 '완행열차(한글)'가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이일권 심사위원장은 "고법에 준한 창의성이 돋보이고, 필획의 단아함이 시의 내용과 적절히 어울린다"고 평했다. 최우수상에 염은주(홍초서) 씨, 우수상에 권옥영(해서)·김현정(해서)·최창호(예서)·김석권(문인화) 씨 등이 뽑혔다.

기로 부문에는 최우수상 신승추(한글) 씨, 우수상 양중규(문인화) 씨가 선정됐다. 특선 106점, 입선 259점 등을 포함해 총 373점이 입상으로 결정됐다.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양동마을 국제서예대전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환)가 주관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양동마을에서 열리고, 입상작은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양동마을 고택, 정자, 서당 등지에서 전시한다.

이연정 기자 lyj@maeil.com



박은숙 씨 '완행열차'

구미시 이달의 기업 (주)서환전자 전자제품용 필름 제조 강소기업



구미시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주)서환전자를 선정하고 4일 시청 계양대에서 회사기 계약식을 했다.

이날 회사기 계약식에는 박재완 서환전자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했다.

서환전자는 2005년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 구미 본사를 설립해 전자제품용 필름, 라벨 필름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강소기업이다.

ISO 인증, 전문특허등록, 기술역량 우수

기업 인증 등을 받았으며 차량용 보호필름, 제품 포장재, 코로나 진단키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박재완 대표는 "구미시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참전용사故 조성래 씨 70년 만에 화랑무공훈장

조국수호 헌신...아들이 대신 받아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故) 조성래 씨에게 70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경산시는 4일 조현일 시장과 박성선 무공수훈자회 경산시지회 회장, 7516부대 현현섭 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 조성래 씨의 자녀 조현섭 씨에게 국장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과 기념패를 전수했다.

고 조성래 씨는 6·25전쟁 당시 7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대한민국 영토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무공훈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조현섭 씨는 "늦게나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 애쓰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영예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2019년부터 6·25전쟁 당시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factk@maeil.com

영주 동산고 미용과 7명 "4주간 싱가포르 현장학습 가요"



경북교육청 글로벌 학습 대상자로 뽑혀

경북 영주의 동산고 미용과 학생 7명이 2022년도 경북교육청사업단 (주)뷰티그레아 이가자헤어비스 글로벌 현장 학습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3일 싱가포르로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났다. 이들 학생들은 4주간 싱가포르에서 여학 교육

과 직무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항공료와 숙박료, 보험료, 교육비 등은 전액 지원받는다. 현장 학습 후에는 이미 채용이 확정된 국내 매장에 취업하게 된다.

김소영 동산고 교장은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뷰티디자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경대 기자

오늘의 운세 10월 6일(음력 9월 11일) 더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36년생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낮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37년생 가족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38년생 운치 없는데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39년생 마음에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40년생 물에 이상이 생겨 수술이나 치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세요.
▶41년생 면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써서 관리하세요.
▶42년생 내가 바라지 않던 것을 어쩌다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43년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하면 뭐라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44년생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5년생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지라도 두가 좋게 되는 일이라면 동감하도록 하세요.
▶46년생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더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47년생 선의의 행동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악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48년생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세요.
▶49년생 배움의 기회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50년생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세요.
▶51년생 일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돌입했으니 취미 활동을 하면서 행복 찾기에 집중하세요.
▶52년생 친구, 동료들과 안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마무리될 거예요.
▶53년생 힘든 일이 겹쳐서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힘든 걸 또 해주세요.
▶54년생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마음이 공명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바로 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들어주세요.
▶55년생 흘러가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56년생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기획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마무리를 하세요.
▶57년생 겉으로 동하면 손해보는 이익이 생겨나니 참고하세요.
▶58년생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세요.
▶59년생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세요.
▶60년생 오지랖이 발동하여 다른 사람들 일 처리에 바쁘니, 때로는 거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일의 진행이 잘 되지 않고 꼬이는데, 뒷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62년생 내 인생에 무엇이든 일어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63년생 친구, 동료들과 친분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세요.
▶64년생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65년생 인복이 넘치는 날입니다. 뒷사람에게 잘하면 뭐라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66년생 일적으로 먼 곳에 가게 되네요. 늘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주세요.
▶67년생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이 됩니다.
▶68년생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유익한 쪽으로 결론을 내주세요.
▶69년생 가족들을 챙겨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옛 연인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재회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세요.
▶70년생 무조건 내가 정답은 아닙니다.
▶71년생 생 가족,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힘들었던 일들도 무사히 해결되는 운세입니다.
▶72년생 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건 어렵습니다.
▶73년생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74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75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76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77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78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79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0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1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2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3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4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5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6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7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8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89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0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1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2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3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4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5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6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7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8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99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
▶100년생 사로 일을 진행한다면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으세요.